

## 법화초심성불초 (法華初心成佛抄)

### 낭랑한 창제가 전진의 활력 희망의 첫걸음은 내 생명의 변혁에서

#### 현대어역

내 마음의 묘호렌계교를 본존으로 높여 우러러 받들고, 내 마음속의 불성이 남묘호렌계교라고 부르고 불리어서 나타나심을 부처라고 한다. 비유하면 새장 속의 새가 울면 하늘을 나는 새가 불리어서 모이는 이치와 같다. 하늘을 나는 새가 모이면 새장 속의 새도 나가려고 함과 같다. 입으로 묘법을 봉창하면 내 몸의 불성도 불리어서 반드시 나타난다. 범왕과 제석의 불성은 불리어서 우리를 지킨다. 부처와 보살의 불성은 불리어서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만약 잠시라도 (법화경을) 지닌다면 나는 곧 기뻐하며 제불도 또한 그러하리라.’ (법화경 견보답품 제11)고 하심은 이 뜻이다.

#### 무너지지 않는 행복경애를 확립

모든 불성을 오직 한 마디로 불러 나타내는 창제의 공덕이 얼마나 굉장한지, 여기서는 그 위대함을 밝혔습니다. 맨 처음에 대성인은 “나의 기심의 묘호렌계교를 본존으로 숭앙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제는 어본존을 향한 신심이 있어야 성불의 수행이 됩니다. 대성인은 자신의 마음에 현현한 묘호렌계교를 어본존으로서 도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본존을 수지하고 거울로 삼으며 본보기로 삼아, 나도 대성인과 똑같은 관대(寬大)하고 존극한 경애를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나의 기심의 묘호렌계교를 본존으로 숭앙’ 이라는 뜻입니다. 몹시 탁하고 악한 시대에도 모든 사람을 지키며 가르쳐 육성하는 주사친(主師親) 삼덕(三德)을 갖추고

싸우신 대자대비한 대성인을 근본적인 스승으로 받들어 존경하며, 불석신명한 스승의 실천을 배워 계승하는 일이 어본존을 올바르게 숭앙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스승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 홀로 일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와 안심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일이 바로 어본존을 수지하는 근본자세입니다. 반대로 내 몸 밖에 있는 부처, 예를 들면 이전경의 권불(權佛)과 같은 초인적인 존재에 매달리는 듯한 신앙은 진정으로 ‘나의 기심의 묘호렌계교를 본존으로 숭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치노부인답서>에는 “이 어본존을 결코 타처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다만 우리 중생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남묘호렌계교라고 봉창하는 흥중의 육단에 계시느니라.” (어서 1244쪽)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이 “니치렌의 혼” (어서 1124쪽)인 자신의 불계(佛界)를 한 폭의 만다라로 나타내신 이 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흥중의 어본존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본존은 그 명경입니다. 우리가 어본존을 수지하고 제목을 부르는 이유는 내 흥중의 어본존을 용현해 ‘기심의 묘호렌계교’를 약동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잊으면 자신에게서 동떨어진 절대자에게 ‘매달리는 신앙’이 됩니다. 도다 선생님은 “그대 자신이 남묘호렌계교다. 그러므로 부처가 병이나 경제고에 질 리가 없지 않은가.” 라고 자주 지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위대한 가능성에 눈뜨면 어떠한 괴로운 역경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 강한 자신을 만들려는 신앙입니다. 선생님은 확신하지 않고 체념하거나 나약한 자세를 보이는 회원에게는 참으로 엄하게 지도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보고를 들었을 때는 웃음을 띄며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위대한 자신에게 눈떠라.” “자기답게 살아라.” 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심의 묘호렌계교’를 용현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행복경애를 흥중에 확립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창제행은 우주와 생명이 교류

이 어서에서는 ‘나의 기심의 묘호렌계교’를 본존으로 숭앙하고 남묘호렌계교의 창제행을 실천하면 “나의 기심 중의 불성, 남묘호렌계교라고 부르고 불리어서 나타나심을 부처라고 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불계가 용현하는 모습을 ‘새장 속의 새’에 비유해서 참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새장 속의 새가 울면 하늘을 나는 새가 불리어서 모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모이면 새장 속의 새도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새장 속의 새’는 범부인 우리 자신의 불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장은 근본적인 무명(無明)이나 여러 가지 번뇌, 여러 가지 고뇌에 속박된 일체중생의 본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새장 속의 새’가 신심을 일으켜서 제목을 부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모든 중생의 불성입니다. 우

리는 자신이 부르는 제목 소리로 불성, 다시 말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묘호렌계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 아니라 실은 모든 중생의 불성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어서에서 배독했듯이 모든 부처, 모든 보살을 비롯해 십계(十界) 일체중생의 불성도 또한 묘호렌계교입니다. 그 모든 불성을 불러 나타내는 힘이 우리가 한번 묘호렌계교라고 부르는 제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창제 소리는 전 우주 중생의 불성을 눈뜨게 하는 대음성입니다. 그리고 ‘새장 속의 새’의 소리에 불리어서 ‘하늘을 나는 새’가 모이면 ‘새장 속의 새’도 새장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때 무명과 고뇌의 새장이 없어지고 속박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운 ‘법성(法性)의 대공(大空)’, 즉 천공(天空)처럼 광활하고 자유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남묘호렌계교라는 제목을 부르며 진지하게 기원하면 대우주에 편만한 묘법과 공명하여 자기 생명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자기 무명을 타파하는 힘을 용현시킵니다. 말하자면 창제행은 우주와 자신이 교류하는 위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